



4.5 2002년 5월 27일 808호

주제 기획

월드컵의 이름으로... 생존권 · 인권 일단보류?!

월드컵을 1주일 앞둔 5월 24일(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상철(47세)은 이른바 '노점상 정리 D-6'으로 기억됐다. '구경에서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일과 전·후 일 이렇게 3일동안 (노점상을) 못하게 한다'는 그는 "7월 한달 동안에는 고작해야 보통음식만 가게문을 열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97년 IMF에 떠밀려 생계수단으로 노점상을 선택했다는 이씨에게 월드컵은 '생존에의 위협'이었다. "나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고, 월드컵이 잘 치러졌으면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며 반문하는 이씨의 얼굴에는 관심과 함께 정부를 향한 불만이 가득했다.

그들에게 월드컵은 '생존에의 위협'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의 노점상·노숙자·청거민 등 '없는 사람들'을 향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지난 3월에 대대적인 노점 단속에 들어갔었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용역직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노점상인들을 그들의 일터인 거리에서 몰아내고 있다. "미련상 보기 안 좋고 비위생적이다"는 것이 서울시

가 내세운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이유인데, 이 주장은 두 가지 의문이 들게 한다. 첫째로 '도시미관'과 '비위생적'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 기준인가라는 의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식용위생'을 위해 떡볶이와 오뎅 등 노점 먹거리에 대한 전면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떡볶이 등의 몇 가지 외래 음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고시했다. 토종 먹거리인 떡볶이는 안되고 외래음식인 떡볶이는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떡볶이와 햄버거를 나눈 주먹구구식 기준이 노점상 철거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의문, 서울시 말대로 노점상이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비위생적이라고 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월드컵 기간 중에만 잠시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옳단 말인가? 이철철 씨는 "지난(2001년) ASEM이 열린음에도 행외로만 집중한 집중관리 단속하고 행사가

끝나면 예전과 다를 것없다"고 회상하며 "단치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88년 올림픽때와 같이, 88년 아시안게임때와 같이, 2002년 오늘,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는 또 다시 그들에게 발목을 잡는 생계의 위협을 감수하며 일방적인 회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언론 한 목소리 '파업 하지마!'

월드컵의 이름은 이

것뿐만이 아니다. 작년 여름, 조선일보 1면에는 '이 거품에 댄 파업'이란 헤드라인이 박혔지만 이번 여름엔 '월드컵에 댄 파업'이란 헤드라인이 박혔다고 모른다. 이미 정부는 일찍부터 '월드컵 무파업'을 강조해왔고 월드컵 기간 중 파업이 일어났다면 초강경진압도 불사할 자태다. 언론도 한 목소리다. 앞다투어 노사관계의 '평화협정'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에게 파업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들을 국제 행사를 망치는 '공공의 적'으로 몰아내고 있다.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기간에 파업과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와 언론이 '무분규'를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월드컵 기간 중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엄포를 놓는 정부의 자제된 근본적인 문제라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들도 당연히 파업보다 축구가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벌로 보충'되고 있는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하는 사업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엔 '포레시안'은 "한국에 투자하려 고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각 기업 노사관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마련이다. 월드컵 기간 중 파업이 하나도

없었다면 해서 갑자기 안 하려던 투자를 결정하는 정신 나간 외국인들은 없다"고 밝히고 '오마이뉴스' 또한 "외국 금융기관들에선 오히려 정부 주도의 해곡된 노사 관계가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월드컵 기간의 '파업' 자체로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인이 투자를 꺼려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정부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자들의 파업 줄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변화'는 우리 사회가 국가적 이익 앞에서는 개인의 기본권도 얼마든지 목숨바쳐 수 있는, 전체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라는 것의 반증이다. 이런 논리로 정부는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시도했던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축제인가

'세계인의 축제', '지구촌 화합의 제전'... 이외에도 수많은 수식어가 붙은 월드컵이 31일(금)부터 한 달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치러진다. 하지만 발이 갈수록 더럽다. 월드컵의 화려한 뒤에 숨겨진 우리 주위의 어두운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훗날에는 노점상과 집안 당하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고 있는 한, 진정한 화합의 축제란 없다. 그늘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은 말하고 있다. "누구의 축제인가."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우리 학교 월드컵 자원봉사 현황

A조 프랑스: 불어과, B조 스페인: 서반아어과, C조 브라질: 포르투갈어과, D조 폴란드: 폴란드어과, E조 독일: 독일어과, F조 잉글랜드: 영어과, G조 이탈리아: 이탈리아어과, H조 러시아: 노어과, 월드컵 기간 중 각국의 응원단 사이에서, 정상인사를 앞에서, 관공객을 앞에서, 외대인들은 세계인들과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할 것이다. 외대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이번 월드컵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외대인들은 얼마나 될까?

'2002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와 인력발탁에 의하면 5월 25일(토) 현재까지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자로 접수된 우리학교 학생들은 180명 정도다. 하지만 이 숫자는 '조직위원회 본부'에 배정된 인원만 고려한 것으로, 실제 자원봉사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직위원회와 학교측 모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학교밖에 없는 특수아과

경우와 자체적으로 접수·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야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학교측 직원의 귀뜸이다. 폴란드어과의 경우를 통해 자원봉사 현황을 알아보자. 폴란드어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총 80명은 예정경기가 있는 전주·대전·부산 세 도시로 나뉘어 있는데 관공도사인 전주에 가장 많은 50명이 배치된다. 배치받은 50여명은 각각 호텔같은 숙박업소나 걸 등에서 관공객들을 가이드하게 된다.

폴란드대표팀의 베이스캠프가 있는 대전에 배치된 10명은 의료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게 되며 부산의 10명은 폴란드응원단과 같이 움직이며 용역 등의 도움을 준다. 조직위원회 소속의 나머지 10명은 비공식적으로 방한하는 폴란드대통령 등 귀빈들과 함께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서 통역을 담당한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BBS운동 참여자 현황(이태리어과) 교수 인터뷰

'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BBS운동이란?

중앙일보·KBS가 한국문화의해추진위원회의 함께 펼치는 BBS(Before Bad Brigade)운동은 휴대전화로 통한 언어, 문화봉사단 운동이다.

수업을 진행중이더라도 핸드폰을 꺼놓을 수가 없고 언제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오곤한다.

참여하게 된 동기?

이태리어과 언어과 교수님께서 처음 만났고 외국인 문학 전공자들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해 주자였다. 우리학교에 7~8분의 학생님이 동참하고 계시며 통번역대학원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월드컵 봉사자는 홈스테이(home stay)를 한다. 외국인인 한국인의 가정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활동기간은?

5월 30일부터 월드컵 기간 한달동안이지만, 제도를 개편해서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BBS운동과 관련해 외대생들에게 한마디? 우리학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다. 국제적인 행사에 봉사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직 신장하지 않은 사람은 추가 가입해 활동했으면 한다. 꼭 BBS운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다. '미소운동'을 펼쳐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BBS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김민정 기자 mksophia@hanmail.net



포스코와 유니세프가 이 자리를 채웁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끝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에는 돌돌 말은 실타래,

찌그러진 깡통, 비참해진 낡은 공들이 있을지 모르나.

모양이야 어떻든 그 자리는 바로 희망의 자리 -

축구는 아이들을 또다른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유니세프와 함께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유니세프와 함께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유니세프와 함께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빛과 그림

기고 - 언론의 월드컵 보도실태 비판

열심히 응원한 그대, 떠나라!

지난 21일(화) 알칸데라의 경기를 보았는가. 관화문과 사내 곳곳의 아이들, 직장이나 이종종과 방송 차를 통해 널리 기량이 향상되고 있는 '한국 축구'의 묘미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는 연일 '16강'을 보도하던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제 '8강'도 가능하다는 듯이 허밍크 사내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대도 축구 매니아인가. 그토록 축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수사(연말 5월 28일)했었다. 한 다. 여기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있다. 특이한 일이다. 온통 아들비리 사건으로 도배되던 때와는 달리 유력 일간지에서도 '사건 축소 의혹' 정도를 비판할 뿐, 여전히 사건은 월드컵 관련 사건을 다루는 모양새다.



정권에 대한 내심 있는 5년

월드컵 특수는 몇몇 기업가와 축구관계자에게는 유망한 듯 하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글픔과 사글픔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막수 치며 축구에 관해 있는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월드컵 열풍을 조정하며 '월드컵 만능주의'를 유포하는 언론의 행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5. 26과 6. 13

그대는 이것을 더 기리고 있는가. 대표팀 경기일 열풍은 연일 방송사에서 마치 예고처럼 홍보하고 있다. 신문을 한 부 퍼보자. 16강 기원 기원체의 광고를 심심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6. 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그 다지 눈에 띄지 않는게 사실이다. 세간을 인기가 모으고 있는 연가지를 섬의 해 포스터도 제작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비하면, 도저히 주변에 선거 얘기는 없다.

며칠 전만해도 김대중 아들들의 비리로 떠들썩하던 정계도 월드컵 기간인지 조용하다. '월드컵 11부' 흥업세를 구축

를 시행하는 곳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간점검도 조선일보 '지저체,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책기회 이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을 선출하는 지자체 선거도 월드컵 앞에서는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지는 실재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생계도 월드컵 앞에서는 '국가 이미지' 문제였다. 민주노총 연대대회 전정국(중앙일보 5월 25일 자)이란 음지막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신문에 보도됐다. 대부분 보도의 분위기는 월드컵 개막전에 마무리된 대령스다. '현대의 노조 다음주 조영발생 결의'(매일경제 5월 25일자)라는 기사에서는 대한한 우위를 표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해설이나 대안적

접근은 없다.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소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인가? 몇몇 거대 자본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국가 신용등급이 인상된 작년, 꼭 노벨상이라도 받은 양 정부의 언론에서는 떠돌아다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잘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갑자기 위생을 정리하려고 갑작스레 노정식 단속에 나섰고 한때 잠잠하던 철거지역의 용역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와중에 개고기 시식회를 하겠다는 음식점연합은 눈길을 끈다. '야만적'이라는 비판 앞에 당당히 '먹어보라'고 애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국가 이미지를 생각하고 정쟁을 짚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벼포를 보여준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부추기기도 하듯 '월드컵, 한국에게 좋은 기회다'(중앙일보 5월 28일자) '월드컵 성공을 재도약의 디딤돌로'(경향신문 '월드컵 특집, 2002년 12월)는 글을 게재하며 '국가 이미지 쇄신'의 기대를 붙여넣고 있다.

월드컵 특수에 가려 국내 생산과 수출을 기본으로한 실질 경제성장은 더더욱을 경계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월드컵 만능주의를 유포하는 언론은 사회의 가치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주지 않는다. 월드컵 개최로 세계적 빛깔이던 우리가 잃어 경제대국으로 우뚝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불만과 정지의 불신이 '축구 축제'로 줄러나고 있다. 축구 축제로 모든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덮어버리는 언론행태는 대단한 오만이다. 세계적 축구 축제가 끝난 뒤 다들 무슨 무엇으로 사회의 어둠을 빛으로 포장할 것인가. 우리는 월드컵 이후 또 무엇인가를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갈 것인지 언론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강세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상임운영위원장〉

월드컵 16강, 신화는 이미 이루어졌다?

아마도 축구만큼 전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는 드물 것이다. 축구의 전후반 90분 동안 선수들의 움직임은 보라던 이러한 열광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양쪽의 골대를 놓고 상대방 쪽에 공을 차 넣어 그곳을 '점령'하는 것.

이것이 축구의 전형이다. 이러한 전형에 정치, 군사적 내용이 채워지면 바로 전쟁으로 탈바꿈한다. 월드컵을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현대의 축구경기를 전투에 대한 욕망, 정령에 대한 욕망에 규칙과 유니폼이라는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 것으로 생각하면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가 됐던, 전쟁의 변형이 됐던 울며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특히 월드컵이 5년이나 진술하고도 한반도 이기진 못한 한국이 모처럼 붉은 악마의 응원곡과 '우리집'이라는 점점으로 16강에 진출하길 바라고 있다. 이런 열망에 힘입어 각종 매체와 거리 상점에서는 '16강 진술'의 기호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사실 16강 진출이라는 것은 축구경기의 대전포에서 볼 때 2002년 월드컵에서 축구를 잘하는 16개 국가 중 하나라는 단순한

사실 밖에 없다. 이 단순한 사실에 각종 매체와 선전물,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16강 진술'은 국민의 열광이자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진다. 언뜻 보기에 당연한 이 절차에서 국민의 열광, 성공적 개최를 담론('discourse')으로 파악할 때, 16강 진출을 '신화(myth)'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담론에는 역사적 경험,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개입한다.

순기능 이후 무수한 율령력 스타 탄생과 영웅화에 어김없이 역경을 딛고 공백을 뛰어 건 한국인의 의지가 동원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국제 경기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영광이 국가의 영광으로 치환된다는 공식을 습득한 것이다. 이러한 공식화를 스포츠 신화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지금 신화의 장사기에 서있다. 태고부터 내려온 전쟁과 정령의 형식을 월드컵으로 바꾸고 그 형식에 국민의 열광과 성공이라는 내용의 역사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월드컵 16강 신화의 본질이다.

물론이 보면 이러한 스포츠 신화는 독재정권이 사용해 온 매우 오래된 문화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금 월드컵 16강 신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유래 없는 16강 진출이라는 기포의 넘쳐나기 때문이다. 주로 매스 미디어에 주도하는 이 기포의 파인은 '16강 진출이 국민의 영광'이라는 담론 아래로 수많은 의미의 생산과 이어진다. LG 이커브 광고처럼 국가대표의 한 골을 10,000원으로 치환시키거나 16강 진출을 통해 감미로운 경사도 의미를 부여하여 무료 시사회를 하던 '열광과 축제'라는 개대담론의 영역 내에서는 모든 의미부여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런 파면 '월드컵 16강 진술, 성공적 개최'라는 기포는 더 이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계급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포괄하여 하나의 목표로 만드는 '문화적 통합 장치'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노동부에서 월드컵 기간을 무분규, 무파괴의 기간으로 정하고도 호들갑이겠는가? 이렇게 없는 대규모 신화의 공세가 더욱 심화한 것은 16강 진출에 개인은 없고 국가의 기업을 있다는 점이다.

성공적 개최의 기준은 모호하지만 남는 것은 2002년 월드컵이 한순간에 있었다는 하나의 사실과 월드컵 마케팅의 특수를 노린 FIFA와 대기업의 손익 계산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개개인도 각종 매체 쏟아내는 축구정보를 보고 어느새 허밍크까지 평가하는 2대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었다. 그뿐만이? 지난 ASEM 정상회담 기간에 16강 진출을 축하하며 2부대 운영 때 두 달대인 그 시민들은 지금 무려 1달 동안의 2부대 운영에 아무런 편만 내용을 넣고 있지 않다.

월드컵 16강의 신화는 온 국민을 개최의 주체로 도처에서 부르고 있다. 이 부름을 피할 수 없기에 한반도에도 한 컵의 경기를 보지 않으면 '배극노'가 되고 월드컵 기간 중 여행을 하는 노동자들은 집단 이기주의로 몰린다. 우리가 월드컵 개최의 주체로 대답하는 순간 학생, 노동자, 농민이라는 이름표는 순식간에 증발한다. 남는 것은 '열광하는 국민' 뿐이다.

"월드컵 16강의 신화를 일구었다"는 열광은 이제 그만 현연, 이미 월드컵 16강의 신화는 너무도 잘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경기당일 열광하는 국민으로써 충분히 열광하고 다음날 또 다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피곤한 삶의 현상으로 돌아야 하는 일 뿐이다.

김동원

(우리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월드컵과 아리랑... '동반자로서의 남과 북' 알리기

이번 주 금요일(31일) 우리나라에서 는 아시아 최초로 지구촌의 축구 월드컵이 열렸다.

하 지 만 전세계인의 화해와 평화의 주장은 월드컵이 현재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 한국에 서 열리라는 것은 묘한 아이러니고, 이는 전 세계에 알릴 다시 없는 기회라는 점이다. 지금의 한국은 외국 여행을 가면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South)인지 북(North)인지를 설명해야하는 상황이다. 아직도 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언급하고 있고, 여전히 남북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깨끗한 한국, 친절한 한국보다 더

이 없으며 남북 단체들도 사실상 어떤 계층을 하나를 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월드컵을 통한 대규모 남북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분명 한 것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다는 것과 이번 기회는 남북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는 전 세계에 알릴 다시 없는 기회라는 점이다. 지금의 한국은 외국 여행을 가면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South)인지 북(North)인지를 설명해야하는 상황이다. 아직도 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언급하고 있고, 여전히 남북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깨끗한 한국, 친절한 한국보다 더

이상 과거 발전의 신화인 남북의 갈등이 아닌 21세기의 한 동반자로서의 남과 북을 알리는 일이다.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강조하는 세계인의 축제 속에서 아직도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한

국의 모습일 것이다. 특히 우리학교의 특성상 이번 월드컵이

드라마에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을 찾는 이들에게 한국을 홍보할 우리 의대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어, 한국봐라”
다소 다양한, 무궁무진한 재미와 정보

배집, 오늘부터 탐험단 복귀
배집 탐험단, 무궁무진한 재미와 정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은행과 단 하나의 외환전문은행이 있습니다

배낭여행! 어학연수! 외환은행이 함께합니다

- ▶ 해외에서 국내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국제현금카드 발급
- ▶ 유네스코 공인 국제학생증 발급
- ▶ 해외어학연수생을 위한 어학연수자금대출 지원
- ▶ 유럽의 상점, 식당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EURO VISA 여행자수표 발행
- ▶ 건당 미화300달러당 이상 환전시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 ▶ 해외건강보험료를 15% 절약할 수 있는 해외건강보험카드 제공

외환포탈사이트 (www.Fxkeb.com) 환전 서비스
기대은행에 상관이 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환전하는 **사이버환전**
공동구매 형태의 환율우대서비스 **환율할매**, **송금할매**
유학포탈사이트 (www.yes4study.com) 내 관련 정보 제공

외환은행
www.Fxkeb.com

yes 콜센터 : 서울·경수면(02)3709-8000 · 지방 1544-3000

환율우대권
당일에 따라 10%~50%의 환율우대권 제공

200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주간)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 전 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

☎(031)570-7014~6 http://gip.khu.ac.kr

장학제도 / 특전

- 대학생 진학 학비 장학금 전액 지급
- 대학생 진학 기숙사 숙식 장학금 전액 지급
- 강의 교재 지급
- 해외 단체 연수 실시(교외비보)
-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입학 지원 프로그램
- 해외 단기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
- 다양한 T.A 및 R.A 기회 부여

특기사항

- 평화복지대학원 국제지도자 양성
- 전 과정 영어로 강의
- 1993년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전공에 따라 정치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 석사학위 수여
- 전문성과 지도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특강과 실습교육 실시 (외의 민주주의, 무역 국제, 무역 UN총회, 실무연수 등)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모집학과 : 국제평화 / 국제·공공정책 / 국제경영 / 사회복지 / NGO

■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와 동 연령자

■ 전형방법 : 논문, 영어(TOEFL, TOEIC 또는 TEPS 최근 2년내 취득 성적 제출) 및 면접

■ 원서교부 : 접수기간 : 2002년 5월 27일(화) ~ 6월 7일(금)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기간 : 2002년 6월 12일(수) ~ 6월 19일(수)

■ 문의 의 : ☎(031) 570-7014~6 ■ http://gip.khu.ac.kr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앗! 가요제 갈 시간이다!

다시! 5월 29일(수) 오후 4시

▷ 장소 : 양양대극장 노년극장

▷ 초대가수 : 인빈댄스 서브웨이, 김경민

▷ 시상내역 :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 문의 : (031)330-4138, 4597 / bbs207@hanmail.net



▲ 교동학교 졸업 후 다시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온 그녀. 아직 '연기적임' 그녀 영포의 한복을 보는 듯...
-출판사서과, 케이팝, 유, 유교수가 이현영에서

2002 용인 대동제 그 현장 속으로



▲ 도서관에 붙은 '7,000의 난장타기'



▲ '월보나!' 학교에 등장한
여장남자의 한마디.



▲ "한잔 받으세요"
대동제를 계기로 등
록금 투쟁기간 동안
학생처 소속 분들과
학생들 간에 생긴
오해와 불신이 해결
됐으면...

우리모두 어울려 보세
-서종연 어울극단에서



사진 양창모 기자
김민경 기자
글 김종원 기자

◀ '헉! 안되겠다 F-15K로
변신! 하나~둘!
-장년박서를 패러디한
몸짓패 난장'



▲ "카악~~~~~" 대동제하면 빠지지 않는 '자이로 담요'

"세계평화를 위한 진정한 리더로서의 UN"

UN as the True Leader for the World Peace

일시 2002년 5월 31일(금) 오후 2시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예경홀 2층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서울평화상문화재단
국정홍보처, UN한국협회, 외교안부연구원
UNESCO한국위원회



모의국제연합 - 한국외국어대학교
The Model United Nations
http://www.modelun.or.kr Tel. (02)961-4458

제26차
모의유엔총회에
초대합니다

